

韓國美術史研究 30年：總觀

文 明 大

〈目 次〉

- | | |
|----------------|-------------------|
| I. 머리말 | IV. 分野別 研究現況과 問題點 |
| II. 學會活動 30년 | V. 美術史研究의 課題 |
| III. 美術史研究 30년 | VI. 맺음말 |

I. 머리말

韓國美術史學會가 考古美術同人會란 이름으로 창립된지 30년째 되는 오늘날 우리미술사 연구의 업적은 괄목할 만큼 많아졌고, 그 수준 또한 눈에 띄게 높아졌다. 그것은 고유섭선생의 학문풍토를 계승한 창립동인(金元龍·全鑿弼·秦弘燮·崔淳雨·黃壽永)들의 피나는 노력과 이를 계승한 선배(정영호교수 등)·동료 모든 학자들의 각고의 정진(精進) 때문이었다고 하겠다. 더구나 우리가 못내 갈망해마지 않던 학부와 대학원과정에 미술사학과(美術史學科)들이 속속 설치되어 신진기예의 학자들이 배출되고 있는 사실에 가슴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30년이란 한 세대(世代)의 노고가 이러한 기적아닌 기적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는 점에 우리는 다같이 환희의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마냥 기쁨에 안주(安住)할 수만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믿는다. 첫째 다른 학문보다 한 세대나 늦게 출발하였을 뿐더러, 둘째 학부에 아직도 정식 미술사학과가 설치되지 못하였고, 셋째 그래서 올바른 미술사관(美術史觀)의 정립과 연구방법의 과학화가 미흡한 상태이며, 넷째 연구자가 적절히 배출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섯째 배출된 인재들조차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당면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 세대를 마감하고 또 한 세대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30년동안 이루어 놓은 미술사연구업적을 엄정하게 재점검하여 본받아야 할 점은 흔쾌히 본받고, 개선해야 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여 미술사연구의 도약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사명이지만 앞으로 이 학회(學會)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게 될 신진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당면과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분야별연구의 회고와 전망은 이들에 의하여 반성되고 전망되어 다시한번 진지한 자세로 학문연구에 매진해야 할 것이지만 미술사연구 30년을 총체적으로 조망하고, 전망하는 일도 필요할 것으로 믿는다. 여기서는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우리 미술사연구 30년을 전반적으로 반성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총체적으로 전망해보고자 하는

바이다”.

II. 學會活動 30년

학문연구는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여럿이 모여서 토론만 한다고 해서 학문의 깊이가 더 깊어지거나 보다 넓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고고하게 혼자서 연구에만 전념하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연구성과를 알리고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면 그 연구는 무의미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연구는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오해질 수 있고 더욱 개선되어 바람직한 업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학문의 질적인 변화 이른바 획기적인 변모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 제도적인 장치로 연구소나 학회가 가장 바람직하다. 특히 학문연구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학회조직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전국적인 규모로 모든 학자들이 동참할 수 있는 조직인 학회는 개인적인 연구를 토론이라는 여과장치를 거쳐 질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집단연구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대규모의 연구도 학회는 거뜬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술사학계에서는 이러한 학회가 때늦은 감이 있지만 1960년에 탄생되었다. 바로 考古美術同人會이다. 창립회원은 金元龍·全鏐弼·秦弘燮·崔淳雨·黃壽永 교수인데 1960년 8월 15일에는 同人誌『考古美術』第1號가 등사유인물로나마 출간되었다. 이 『고고미술』의 출현이야말로 한국미술사 연구에 한 획을 긋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동인회가 동인지를 발간하면서 “이 方面의 資料를 보존·조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선언했다시피 이후 고고미술의 자료를 열정적으로 찾고 조사하여 널리 알리는 데 주력했으며 그래서 미술사연구의 기초를 다지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창립회원 4명과 이를 이은 정영호교수를 위시하여 신영훈·정양모·문갑수·이호관·맹인재·정명호·문명대·김정기교수 등 많은 동인들의 각고의 노력이 밑받침이 되어 가능했다고 하겠다.

고고미술동인회는 8년후인 1968년 2월에 韓國美術史學會로 발전적으로 개편 발족한다. 동인지 『考古美術』이 100호를 발간하게 되었고, 학회발족 10주년을 기념하는 뜻이 계기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동안 온축된 미술사연구가 이제 본궤도에 진입했다는 뜻이 더 강했다고 하겠다. 창립동인들의 학적수준이 절정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강경숙·문명대·김화영 등 국내에서 정식으로 배출된 신진들의 연구활동이 본격화되어 신선한 활력이 학계에 나타났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 결과 그

1) 韓國美術史를 전반적으로 반성하고 전망한 글은 여러편 있지만 대표적인 것을 연대순으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

① 文明大, 「現代韓國美術史學의 方向」〈韓國美術史學의 理論과 方法〉, 悅話堂, 1978.

② 安輝濬, 「한국미술사의 궤적」〈한국학입문〉, 학술원.

③ 秦弘燮, 「美術史學의 展望」〈文藝振興〉, 1981. 3.

———, 「美術史」〈震檀學報〉57호, 1984.

④ 文明大, 「한국미술사학과 미술사교육」〈美術史學〉1, 한국미술사교육연구회, 1987.

이듬해 발행된 『고고미술』 101호(1969년 3월)부터 유인물에서 인쇄로 활자화가 단행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내용도 자료조사 위주에서 연구논문으로 승화되는 등 그야말로 현대적인 학회로 명실공히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1970년대에는 대학과 대학원에 불교미술학과(동국대)와 미학미술사학과(홍익대) 등이 등장하여 인재양성이 시작되었고 한편 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신진학자 안휘준·김리나교수 등이 국내에서 배출된 학자들과 함께 학과를 맡아 미술사연구에 새바람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1970년대말과 1980년대에 걸쳐 대학원과 학부에 미술사학과 및 고고미술사학과들이 잇달아 설치되어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기 시작한 것도 학회활동의 활성화에 활력소가 되었다.

이에 힘입어 몇년 시행되다 중단된 月例發表會가 완전히 정착되었고 『고고미술』 1—100호가 上·下 두권으로 활자화되었으며, 101—176호도 9권 합집으로 집대성되는 등 한국미술사학회는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 학회의 대표도 창간동인 4인에 이어 차세대(정영호·맹인재·정양모)가 담당할 것도 주목할 일이다.

학회가 발족된 지 30년만인 1990년은 한국미술사학회가 또 한번의 탈바꿈을 하게 되는 해로 미술사학사에 길이 기억될 것이다. 연구제2세대가 학회대표(안휘준)를 담당하게 되었고, 학회지의 이름도 『考古美術』에서 『美術史學研究』로 바뀌게 되어 명실상부한 韓國美術史學會가 된 것이다. 이 역사적인 창립30주년을 기념해서 전국규모의 學術大會를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美術史研究 30年:回顧와 展望”이란 제목의 전국학술대회는 그야말로 학회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30년간의 미술사연구를 반성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날이야말로 우리나라 미술사연구가 또 한번의 승화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한국미술사학회로서 이 학술대회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학회는 성격에 따라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한국미술사학회의 대형화에 따라 분야별 연구도 전문화가 요구된다. 이에 전문학회와 연구소들이 1980년대에 잇달아 발족하게 되었다.²⁾

이 가운데 우선 한국미술사교육연구회(발기인:김리나·문명대·안휘준·유준영·허영환)가 주목된다. 이 연구회는 우리나라 미술사교육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졸업생들의 관계분야에의 진출문제를 풀며, 각 미술사학과의 학문적 연관관계를 긴밀히 하고자 1986년 9월 1일에 발족된 회로서 일종의 미술사학과 연합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매년 4번의 학술발표회와 1번의 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 주로 미술사교육문제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미술사학연구회(1986년 12월 조직)는 이와는 달리 미술사학의 이론과 방법론 등을 연구하기 위해서 모인 회로서 미술사분야 가운데서도 독특한 성격을 띄고 있는 전문학회라 하겠다. 미개척 분야인 미술사학이론을 독일학풍의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하고자 발족된 이 연구회는 영세한 학문

2) 學會가 너무 난립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만 전문적인 분야별 小研究會는 다양할 필요도 있다. 여러 學會가 조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홍섭교수가 일찌기 지적한 적이 있다(진홍섭, 『美術史』〈진단학보〉57, p.181).

분야를 지원하는 대우재단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고있는 점이 독특한 면이다. 이런 유형과는 다소 다른 분야별 전문연구회인 한국범종연구회·한국도자사연구회·불교미술사연구회 등도 일찍부터 활동하고 있어서 더욱 고무적이다. 이와함께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도 설립되어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연구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미술사고전과 미술사사료를 연관시켜 연구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이외에 홍익대·동국대·이화여대 등 미술사학과나 미술사전공 동문모임도 조직되어 단위학회활동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 또한 서양미술사학회도 설립되어 미술사의 학문영역이 다양해지고 더욱 확대되는 바람직한 경향이 계속 나타나 이제 한국미술사학계는 학문의 풍성을 구가하고 있는 것이다.

Ⅲ. 美術史研究 30年

우리나라 미술사연구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학회를 중심으로 본다면 크게 두 단계로 대별(大別)된다. 1960년 이전과 1960년 이후이다. 1960년 이전도 1945년 이전과 1945년 이후로 나눌 수 있고, 1960년 이후 역시 1960~1968년, 1969년~1989년, 1990년 이후 등으로 더 세분(細分)할 수 있다.³⁾

1. 1960년 이전

1) 제1기(1945년 이전)

근대적인 학문방법으로 우리나라 미술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은 高裕燮선생과 일인학자들이 그 효시였다고 할 수 있다. 고유섭선생은 경성대 미학·미술사학과를 졸업한 직후인 1930년대부터 우리나라 미술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양식사·사회사·정신사 등 근대적인 미술사학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미술사를 폭넓게 연구하여 우리 미술사연구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렸으며, 그를 사사한 고고미술동인 등 후학들의 길잡이로서 한국미술사학의 비조가 되었다.

고유섭과는 다른 관점에서 우리나라 미술사를 연구한 일군의 일인학자(日人學者)들이 있었다. 이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식민지사관(植民地史觀)에 의해서 우리 미술사를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關野貞이다. 관야정은 철저한 식민사관에 입각해서 우리 미술사를 해석했으며, 그래서 우리 미술을 독창성이 결여된 모방미술이자 섬약한 미술로 단정한 것이다. 관야정과는 달리 우리 미술을 동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동경해마지 않던 柳宗悅이 있다. 그는 본질적으로 관야정의 관점과 다르지 않지만 관야정이 섬약하다고 본 한국미술을 그는

3) 우리나라미술사 연구단계에 대해서는 이미 글쓴이가 앞의 두글에서 지적했지만 여기서는 학회활동의 관점에서 3세대로 구분해 보았다.

“悲哀의美”로 본 것이 다른 면이다.

2) 제2기(1945~1959)

해방직전 고유섭선생의 타계와 해방과 함께 일어난 국토분단 및 1950년의 6·25전쟁 등으로 1958년경까지는 우리의 미술사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겨우 조사사업 정도로 명맥이 유지된 셈이어서 이후 연구를 위한 준비기간 또는 과도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1960년 이후(1960~1990년)

1960년 이후의 미술사연구는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즉 1)1960~1968년, 2)1969~1989년, 3)1990년 이후 등이다.

1) 제1기(1960~1968년)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국립박물관 학예관들과 문화재애호가인 전형필씨 같은 분이 주동되어 미술사연구 모임인 考古美術同人會가 결성되었다는 것은 이미 밝힌 그대로이다. 이들은 대부분 최초의 미술사학자 고유섭선생을 사사하던 분들이어서 그동안 갖은 악조건을 무릅쓰고 옛미술의 조사에 동참하고 있던 참이었으나 이 일은 보다 조직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절실했으므로 同人會로 모여 공동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아직 정식 학회로서는 미흡했으나 학문에 대한 열의나 미술사 자료인 문화재(文化財) 조사에 대한 기개는 대단했으므로 同人들은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동인들의 연구분야는 불상(佛像)이나 불탑(佛塔)의 조사 연구에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각 동인들의 정력적인 조사로 서산마애불·태안마애불 등이 집중적으로 조사·연구되었고 각 지역의 불탑 등을 허다히 조사·발견했는데 각 신문들도 경쟁적으로 취재하여 보도하였으므로 일약 고고·미술은 가장 각광받는 학문분야가 되었다.

이 당시의 연구는 미술사사료의 조사에 집중되었는데 이를 『고고미술』 등에 주로 발표하였지만 어느정도 논문형식을 보여주는 것은 『역사학보』 등에도 수록하였다. 그러나 논문형식의 글이라 하더라도 양식의 문제나 해석의 문제까지 깊이있게 논의하지 못한 단계였다. 따라서 이 당시의 미술사연구의 수준은 사료수집과 조사에 중점을 둔 이른바 기초조사연구단계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사료조사는 이후 미술사 연구의 획기적 발전에 기반을 구축한 것이며, 미술사 연구자들의 저변확대와 사회적인 인식에 크게 공헌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2) 제2기(1969~1989년)

1968년 내지 1969년은 우리나라 미술사연구가 성숙단계에 접어든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연구주체들이 다양화된 점이다. 기존 학자들인 황수영·진홍섭·최순우·김원룡교수 등이 보다 심도있는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하여 학자로서 원숙한 경지에 이르렀으며, 대학원에서 정식으로 미술사를 전공한 강경숙·문명대·김화영 그리고 최완수씨 등 신진학자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외에 정영호·정양모·김정기교수 등도 계속 활약하고 있지만 그들은 주로 조사발굴에 주력한 것이 특징이다. 이른바 신구세대가 공존하면서 한국미술사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이 시기의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1970년대에는 외국에서 유학하고 귀국하는 학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회화사의 安輝濬· 조각사의 金理那교수 그리고 잇달아 70년대 후반기에는 권영필·이성미·유준영·허영환교수 등이 귀국 후 각 대학에서 학문활동을 활발히 전개했으며, 김동현·강우방·장충식교수 등이 활약하기 시작한다. 1980년대에는 이들 제2세대 교수들에 의하여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미술사학과 출신의 신진학자들이 배출되어 학문활동을 시작한다. 회화사의 홍선표·이태호·변영섭·조선미·유마리·이은희·김정희·박도화·한정희·정우택·안병찬·정병모·박은순·진준현·도미자씨 등과 이원복씨, 조각사의 최성은·곽동석·김춘실·김길용, 공예사의 김창균·안귀숙·강순형·최응천·윤용이·최건·김재열·김영원·임영애·이영희씨 등과 건축사의 김동욱교수와 이강근·한재수씨 등 많은 인재들이 배출된 것이다.⁴⁾

이들은 제3세대미술사학자라 할 수 있는데 1990년대에 제2세대학자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또한 해외에서 박영숙(런던대)·김홍남·백금자씨 등의 활약도 특기할 일이며, 그들은 우리미술을 해외학계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둘째 연구분야 역시 다원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제1세대들은 조각(佛像)과 탑과 연구에 주력하여 연구업적도 이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조사를 통하여 새로 발견된 작품의 연구에 치중한 것이 특징이어서 아마도 연구분야가 한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제2세대는 조각·회화·공예·건축 등 전분야를 연구대상으로 삼았지만 연구인원의 한정으로 모든 분야가 골고루 발전하지는 못했다고 생각된다. 조각사는 제1세대에 이어 활발히 연구된 분야이며, 회화사는 새로 개척되어 급속히 신장된 분야로 일반회화사와 불교회화사가 고루 발전하여 크게 각광을 받은 것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라 할 수 있겠다. 공예사 분야의 경우 도자기 분야 이외에도 몇 예를 제외하면 자료조사 수준을 넘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이다. 건축사에서는 탑과사연구가 정영호교수에 이어 장충식교수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지만 앞시대의 주도적인 활약에 비하면 훨씬 저조한 편이다. 목조건축 등은 미술사적인 방법보다는 여전히 건축공학 내지 기술사적인 면이 강하게 나타나 계속 하나의 숙제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제3세대에서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해결되고 있다. 회화사 연구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아

4) 人選기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고, 섭섭한 경우도 많겠지만, 美術史學科博士課程이상, 소장학자로 전공논문이 있는 경우, 연구기관에 재직하거나 계속 연구하는 학자로 3편이상의 논문이 있는 사람 이상으로 정했다. 최대한 공정하게 인선했지만 워낙 신진학자들이 많아서 여기서 본의 아니게 빠진 경우도 있을 것이다. 만약 그러했다면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경우 다시 기재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졌고, 공예사 가운데 금속공예사와 목공예·섬유공예 등에까지 연구분야가 확대되었으며, 건축사에서도 미술사학과 출신이 배출되어 미술사적인 연구에도 관심을 갖게된 것이다. 이제 세부적인 분야까지도 논의되는 바람직한 단계에 이르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연구방법의 질적인 변화가 눈에 띈다는 점이다. 제1세대는 조사연구로 시작하여 실증적인 방법으로까지 승화시켜 미술사연구를 한 단계 높여 놓았다. 반면 제2세대는 이러한 선배들의 연구에 힘입어 미술사의 주류인 양식연구에 주력하였고 일부 연구자는 정신사적인 연구방법과 해석적인 방법에 까지 논의하고 있어서 연구방법이 이제 성숙된 것을 알 수 있다.

제3세대는 제2세대의 연구방법을 좀더 취사선택하고 자신의 방법을 개척하여 미술사연구의 과학화를 한층 심화시켜야 할 것이며 이런 점은 모든 분야에서 눈에 띄고 있어서 꼭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연구업적이다. 제1세대에 의하여 도록집의 발간과 한국미술사 개설 그리고 조사연구가 진행되어 미술사 연구의 기반이 완전히 갖추어진 것이 제1세대의 대표적인 업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세대는 회화사·조각사·도자사 등 분야별 개설서를 내어 분야별 연구의 체계가 이루어졌고 심도있는 논문이 정열적으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제3세대는 보다 세분된 연구와 미개척분야가 더욱 개척되어 다양한 연구업적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는다.

IV. 分野別 研究現況과 問題點

앞장의 연구사에서 미술사연구 현황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전체적인 경향만 언급했을 뿐이어서 분야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각 분야별 회고와 전망에서 상세히 논의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논의되어야 할 문제점만을 제시하여 미술사연구 30년을 거시적으로 조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할 따름이다.

1. 조각사

조각사연구 현황 가운데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연구층, 사료수집과 선정, 연구방법 등에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연구층(研究層)의 문제이다. 제1세대에서는 조각사연구인원이 단연 압도적이었고 그래서 미술사연구 가운데 가장 각광을 받았던 분야이다. 황수영·진홍섭·김원룡교수 등과 뒤이어 정영호교수도 탐파사와 함께 조각사연구에 주력하였기 때문이다. 제2세대로 김리나, 강우방, 문명대교수와 그리고 회화사와 함께 조각사연구에도 참여하고 있는 최완수씨 등이 왕성한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3세대는 조각사연구인원이 회화사연구인원보다 현저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1, 2세대의 연구층이 다른 분야보다 두텁고 활발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겠지만 인재양성의 소홀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이수하고

있거나 졸업한 신진들이 배출되고 있으므로 1990년대에는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직도 연구인원 배출에 더욱 배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彫刻史 史料의 수집과 선택에 대한 문제점이다. 현재 조각사 자료들은 각 박물관과 사찰 또는 야외에 있다. 각 박물관에서 조각 사료를 조사할 수 있는 기회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국립박물관의 경우 가장 까다롭다고 평판이 나 있다. 여러가지 관내사정이 있겠지만 조각 사료의 공개문제는 보다 前進的으로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삼국시대 조각 특별전(10.16~11.8)을 계기로 이 문제도 다소 해결되리라 기대해 본다. 사찰이나 야외 조각 역시 점차 조사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 경우 연구자들의 진지한 노력이 한결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다. 특히 새롭고 귀중한 자료의 조사가 활발히 전개되어야 조각사연구가 보다 활기를 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조각사 자료의 선택기준의 문제이다. 주어진 자료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연구자들이 유념해야 할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 조각사의 기준작품이 태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紀年 銘作品과 기년명은 아니지만 그 시대의 대표적인 작품을 선정하는 안목의 개발이 시급한 일이다.

세째 연구방법의 문제이다. 현재 조각사연구는 불교조각사연구에 집중되고 있는데 선사조각과 불교이외의 조각에도 좀더 활발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불교조각연구에도 우선불교 사상에 대한 기시적인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면도 있어서 도상해석에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가령 삼국시대나 통일신라, 고려나 조선시대의 불교사상의 변천과 그 시대의 주류적인 사상 경향의 특징이 다른 것이며 통일신라의 경우 一經·一論을 宗으로 삼아 신앙과 학문을 하는 유파이므로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불교도상해석이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사상사적 접근이 곧 精神史的 또는 圖像解析的인 접근이라고 단정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반성해야 한다. 또 하나 문제점은 산만한 구성과 난삽한 문장으로 쓰여지는 조각사논문들이 일부에서 중후한 글로 인정받기도 한다는 점이다. 논문의 구성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짜여져야 하고, 문장 또한 이해하기 쉽고 논리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새삼 요청된다.

2. 회화사

회화사에서는 연구층이 현재로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다. 제1세대에서는 최순우선생과 이동주교수를 이은 맹인재, 정양모씨등 일부 연구자들이 명맥을 유지했으나, 제2세대에서는 안휘준교수의 왕성한 활동과 뒤이어 최완수·이성미·허영환, 유준영, 권영필, 문명대(불화)교수 등이 활약하고 있으며 제3세대에서는 단연 다른 분야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세대의 특징으로 일반회화사의 연구층도 두텁지만 불교회화사의 연구인원도 눈에 띄게 많아진 점이다. 따라서 연구인원도 급속히 많아졌고 연구분야도 조화되고 있어서 이 분야의 연구업적은 급속히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은 제1세대의 연구인원과 연구업적의 부재에서 온

반작용도 있겠지만 대학과 대학원에서의 과감한 인재배출의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앞으로 질적으로 승화된 연구층의 배출에 더한층 노력을 기울이는 작업이 또한 절실히 요망된다.

둘째 사료수집(史料蒐集)과 선정(選定)문제이다. 회화사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사료수집이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다. 대부분의 회화사료는 박물관이나 개인수장가들에게 비장(秘藏)되어 있다. 박물관사료가 비장되어 있다는 것은 어폐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박물관의 소수직원이나 그외 극히 예외적인 한두사람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료가 공개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진이나 카드 열람조차 짐차 제한되어 가는 실정이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 소장품은 이보다 더 한층 비장되어 있어서 회화사연구에 심대한 난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실물에 가까운 사진자료의 공개나 박사과정 이상의 연구자에게는 실물조사까지도 어느 정도 허용하는 사료공개라는 선진적인 자세가 제도화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회화사연구는 곧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모든 사료는 물론 특히 국가소장 유물은 국민 또는 공공의 것이지 사유물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박물관은 학문연구의 기초를 마련해줄 책무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한다면 사료공개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각 박물관이나 개인소장품의 충실한 도록집과 기초사료집의 발간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료 가운데 작가나 유과별로 계통화시키고 특징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는 안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되며, 연구되지 못한 의의있는 작품이나 분야, 가령 민화나 관화 등을 발굴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셋째 회화사 연구의 방법문제이다. 양식문제나 작가론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사회사적 또는 정신사적 접근방법도 이제 비중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은 공통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작품이나 작가의 역사적 의의를 밝히고 도상의 해석에 불가피한 사상을 밝히는 한도내에서 적절하게 논의할 필요가 절실히 요청되기도 한다. 또한 장·절을 적절히 나눌 수 있는 논문구성의 짜임새와 합리적이고 설득력있는 서술력 등이 회화사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3. 공예사

공예사 연구층은 도자사나 금속공예사 분야 등에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편이지만 목칠공예 등은 여전히 희귀한 셈이고, 고고학적인 발굴품 가령 토기나 금속공예부문 등에도 미술사연구자는 전무한 것이다. 따라서 더많은 연구자가 골고루 분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공예사 전반에 걸쳐 유형이 비슷한 분야는 동시에 연구하는 것도 일단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공예사의 경우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조각의 경우 금속조각이나 목조각·석조각·소조조각 등을 굳이 구별하여 연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어느정도는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특히 공예사 연구인원이 태부족할 때는 더욱 고려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둘째 사료수집과 선정문제 또한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공예사료의 대부분이 발굴품이거나

비장품이기 때문에 사료를 수집한다는 것이 일차적인 난관이다. 더구나 이들 작품들은 제작년대가 부정확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기준작을 선정하는 작업 또한 어려운 문제이다. 발굴품은 발굴보고서를 일차사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기타 일반공예품은 정밀한 도록의 발간이 시급히 요망된다.

셋째 연구방법 문제이다.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연구가 초보적인 단계이므로 무엇보다도 미술사적인 접근 가령 양식사적인 접근과 함께 사회사적인 해명과 도상해석적인 연구방법까지도 과감히 동원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히 요망된다.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도자사의 연구도 형식분류나 시원문제 등을 넘어 구조분석이나 의미해석까지도 연구되어야 할 단계가 아닐까 한다.

4. 건축사

건축사는 미술사쪽에서는 가장 많이 연구되어야 할 분야에 속한다. 그것은 미술사적인 건축사연구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건축학과에서 배출된 건축사학자는 극히 드문 편일 뿐만 아니라 배출된 연구자도 미술사적인 훈련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건축학과에서 필요한 건축공학적인 건축사를 연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현재 건축학과 출신으로 미술사학과에서 정식으로 훈련받은 연구자는 희귀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또한 탐과사연구만 전담하는 연구자도 희귀하다는 것도 역시 심각한 문제점이라 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사연구는 방법상에서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다. 건축사는 건축공학적인 식견을 갖고 있어야 하므로 인문학적인 배경밖에 없는 미술사학과출신 연구자의 경우 건축사연구는 어떤 면에서 결함을 지닐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건축사는 건축기술사를 넘어 건축미술사이므로 건축의 양식과 구조분석 그리고 의미해석에 대한 연구가 무엇보다도 요망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인식없이 우리나라 건축사연구가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목조건축과 석조건축인 석탑을 동시에 연구할 수 있는 연구풍토가 이루어지는 것도 무척 요망되는 점이다.

V. 美術史研究의 課題

우리나라 미술사연구의 당면한 과제를 첫째, 연구 둘째, 정책과 제도 셋째, 학회활동으로 생각되지만 여기서는 앞의 두 문제만 논의하겠다.

1. 연구의 과제

순수한 미술사 연구면에서 당면한 과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세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먼저 史觀이 정립되어야 하며 둘째, 사료선택의 객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연구방법이 과학화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1) 史觀의 정립

미술사를 연구하자면 가장 필요한 것이 미술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안목, 이른바 미술사를 보는 관점인 즉 美術史觀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은 그렇다고 배타적일 수는 없다. 미술사만의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연구방법만 존재할 수도 없으며, 넓게는 인문학과 그안의 역사학의 바탕위에 미학 등 인접학문의 업적도 수용하는 선에서 미술사관이 정립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미술사학은 일정한 학문체계에서 자기자신의 독자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는 점이 반드시 명심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관점이 제대로 정립되어야만 미술사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미술사관 즉 미술사를 보는 관점은 다양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미술을 민족전체의 변화나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민족적 미술사관이며, 민중과의 관계에서 보면 민중미술사관, 양식의 변천에만 관심이 있다면 양식사관, 사회의 변화와 연관시켜 본다면 사회사적 미술사관, 정신(심리분석)사의 변화와 관련시킨다면 정신사적 미술사관 등이 되는 것이다.⁵⁾

오늘날에 와서는 하나의 관점만 고집하는 경향은 점차 줄어지고 여러 관점이 종합적으로 조화되거나 필요에 따라 하나의 관점을 부각시켜 미술사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유행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관점(多元論)이 모여 총체적인 관점을 형성할 수도 있지만 애매모호한 경향으로 되어 초점이 흐릴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한국미술사를 보는 안목은 따라서 상황에 따라 하나로 조화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양한 관점이 하나의 관점으로 통일되자면 相入·相即 이른바 相關關係에 의하여 조화되어야 한다. 즉 서로의 관점이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결합되거나 보완되어 결국 가장 적합한 하나의 관점으로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가령 작품의 형식이나 양식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논의하는 것만 강조하는 연구방법과 그 작품의 형식속에 내재되어 있는 도상 내용의 상징성(象徵性)이나 의미(意味)만을 파악하려는 두 극단적인 연구방법을 지양하고(제들마이어와 바우어說) 이를 서로 연관시켜 조화된 관점(元曉의 起信論疏에서는 一心二門이라 표현)에서 연구해야 된다는 말이다. 다른 다양한 관점도 이렇게 하나로 조화시키는 관점이 이른바 첫째로 중요한 바람직한 美術史觀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둘째, 普遍性和 特殊性의 조화관계의 관점에서 比較美術史 내지 미술의 受容問題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말했다시피 미술사는 결국 미술의 양식변천을 밝힐 뿐만 아니라 작품의 조성이나 양식이 변천하게 된 그 어떤 뜻(意味)까지도 연구하는 작업이다. 그 뜻은 흔히 역사적 의의(意義)나 의미(意味)로 통하고 있다. 이 의의나 의미는 시간적, 공간적 관련과 사상사적(思想史的), 사회사적(社會史的) 관계에서 찾아내어야 한다. 따라서 미술양식의 변천은 여러가지 일반적 현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가령 사회적 변화, 정치적 변동, 경제적인 변화, 예술심리와 의욕

5)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文明大, 「現代韓國美術史學의 方向」, 1978년 참조.

(意慾)의 작용, 미술의 전파와 수용, 추상과 사실에의 추구, 사상적 변화 등 갖가지 현상이 미술양식의 변화에 작용한다. 이런 현상을 법칙이라 할 수 있으며 전 현상은 보편적 법칙이라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미술사는 이러한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게 마련인 것이다. 이처럼 보편적인 법칙은 다양한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법칙, 이른바 다원성(多元性=多様性)은 각 법칙들의 결합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즉 몇가지 법칙이 어떤 식으로 결합하느냐에 따라 미술양식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말이다. 이 결합은 시대에 따라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미술은 시대나 지역, 작가나 발원자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밖에 없다. 제각기 다르게 나타난 미술양식을 우리는 특수성이라 말한다. 따라서 미술의 특수성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어떤 절대적인 미술양식이 만고불변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점은 어느정도 이해하면서도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의 미술이 제각기 변하지 않는 특수성이 있다고 확신하는 고정관념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계는 다원적인 법칙의 결합양식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한국미술사는 언제나 상대적이며 상관관계의 개념으로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다. 외래미술의 수용과 우리나라미술의 독창성을 비교사적으로 연구하는 데 이러한 관점은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된다.⁶⁾

셋째, 미술사는 인문주의(人文主義) 또는 문화사적(文化史的) 관점에서 파악해야 된다는 점이다.⁷⁾ 미술사는 인간이 인간을 위하여 창작한 미술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인문학이며 인문주의 또는 인본주의에 바탕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창조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미술은 바로 문화를 유형적(有形的)으로 표현하고 상징하는 것이므로 문화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술사는 문화사의 상징화 또는 유형화라 할 수 있는데 바꾸어 말하면 유형문화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술사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류문화사라는 넓은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은 당연하다.

이상 세 가지 관점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한국미술사를 파악한다면 바른 이해에 도달 할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닐까 한다.

2) 史料選定의 객관화

미술사의 일차적인 사료는 美術作品이다. 한 시대의 미술작품은 부지기수로 다종다양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작품을 모두 사료로 선택할 수는 없다. 어차피 취사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미술작품을 사료로 채택하는 데는 첫째, 각자의 미술사관에 입각할 수 밖에 없다. 어떤 관점에

6) 이 문제는 여러가지로 논의할 수 있고 歷史學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할 수 있다.

文明大, 「韓國美術史의 特殊性試論」〈韓國美術史學의 理論과 方法〉, 1978, 재수록.

7) 파노프스키는 일찌기 「人文學으로서의 美術史」(The History of Art as a Humanistic Discipline) 라는 名文을 남긴 적이 있지만 여기서의 人文主義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살펴 본 것이다.

입각하느냐에 따라 그 기준이 정해지며 이에 따라 미술사 연구의 성격도 다르게 되는 것이다. 작품과 함께 文獻이나 在銘(文)도 중요한 사료 또는 보조사료로 미술사 기술의 핵심요소가 될 수 있다. 이 역시 미술사관에 따라 선정되어질 것이다. 특히 미술작품의 의미나 양식편년을 설정하는데 결정적인 사료로 작용하고 있다.

그 다음 이들 미술 사료는 엄격하게 고증되어야 한다. 시대나 진위문제는 사료선택에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위작을 진작(眞作)으로 판단하거나 고려시대 것을 조선시대작품으로 판정하여 사료를 선택한다면 엉터리 미술사연구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미술사료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물론 객관적이라는 말은 문제성있는 용어임은 사실이지만,⁸⁾ 그러나 선입관에 입각해서 자기의 입론에 알맞은 것만 사료로 선택하고 그 외의 중요 사료를 모두 무시한다면 그 연구는 너무나 독단적이며 없어도 좋은 글이 될 것이다. 훌륭한 미술사가는 좋은 사료를 찾는데 온 정력을 다 기울여야 하고 객관적인 미술사료를 엄정하게 선정해야 할 것이다.

3) 研究方法의 科學化

과학적인 미술사연구방법에 의하여 미술사를 연구한다면 올바른 미술사연구는 재빨리 성취된다. 서양의 미술사학은 다양한 미술사연구방법이 경쟁적으로 제시되어 눈부시게 발전했다. 우리나라의 미술사연구도 미술사연구방법의 개발로 급속히 신장되어야 할 단계에 이르른 것 같다. 그러나 연구방법에는 절대적으로 완벽한 방법이나 진선진미한 법칙은 있을 수 없다. 다양한 연구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은 언제나 상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미술사가들은 겸허한 자세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도 반드시 지혜로운 것이어야 한다. 독단적이고 건강부회적인 방법을 고집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료를 무시하고 자기식 이론을 입증할 수 있는 사료나 방법만을 고집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나쁜, 타기해야 할 연구방법인 것이다.

둘째, 조화된 사관에 의하여 사료가 객관적으로 선택되었다면 이 사료들은 형식적으로 분류되고 양식적으로 계통지어져야 할 것이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미술의 형식과 양식은 다양하지만 주류적인 것과 보조적인 것 또는 두세 양식이 공존하는 것 등이 분명히 인식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계량사적이나 비교사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셋째, 이러한 다양한 양식이나 주류적인 양식이 왜 나타났을까 하는 그 의미를 밝혀내어야 할 것이다. 즉 사상이나 사회사 등 여러가지 방법에 의하여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편견과 사심을 배제해야 하며, 보편적이고 거시적인 방법과 특수하고 미시적인

8) 客觀性과 主觀性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① 車河淳, 「客觀과 主觀의 對立」〈歷史의 理論과 敘述〉, 西江大 人文科學研究所, 1975.

② 송상용, 「쿤의 도전과 객관성의 위기」〈25회 全國歷史學大會 발표요지〉, 1982, pp.20-29.

방법, 개성적인 방법과 공동토론과 협의하는 종합적이고 중도적인 자세 이른바 상관관계의 조화적 관점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한 일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카(E. H. Carr)가 “역사의 객관성은 사상의 객관성이 아니라 사실과 해석, 과거 현재 미래의 관계성의 객관이다. 역사는 그것이 과거와 미래사이의 정합성있는 관계를 세울 때에만 의미와 객관성을 얻는다”⁹⁾ 고 적절히 말했다 시피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는 말을 보다 신중히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하튼 과학적인 것과 자율적인 것은 조화되어야만 미술사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미술사가는 냉철한 이성에 바탕을 두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연구해야 되지만¹⁰⁾ 한편으로 이런 연구는 뜨거운 열정과 불굴의 사명감으로 연구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사력을 다하여 미술사를 연구해야 될 당위성을 잃어지고 있는 것이다.

2. 정책(政策)과 제도 개선

미술사연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데는 학자들의 노력과 함께 정부나 사회의 정책적인 뒷받침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첫째, 정부정책의 배려이다. 미술사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부부서는 문교부(文敎部=教育部)와 문화부(文化部)이다. 문교부는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 미술사학과를 설치해야 한다. 대학원에서는 벌써 수개과가 개설되어 있으므로 학부과정에 적어도 10과 내외는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배출인원의 적절한 숫자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10과 내외가 경쟁한다면 미술사학 발전은 보다 급속히 신장될 것이다. 특히 현재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등 고고미술사학과로 명명한 학과들은 반드시 고고학과와 미술사학과로 분과하거나 古代美術史學科로 성격을 한정시켜야 한다.

문화부는 이렇게 배출된 연구자들이 적절히 소화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각 국공립박물관과 연구소를 설립 확충하여 미술사학과와 배출인원으로 주를 형성하게 해야 한다. 또한 각종 사립박물관과 연구소설립을 권장하여 이런 곳에도 연구원이 적절히 배치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바로 문화국가요 문화민족으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이들 연구기관이나 박물관의 각종 미술사 사료들은 연구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상설 전시나 특별전은 물론 도면, 도판의 제공이나 출판, 공동연구나 용역연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가 공개되어야만 미술사 연구는 급속히 신장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도록집이나 전시

9) E. H. Carr, *What is History?* (Harmondsworth, 1971), p.26. 및 번역서 참조.

10) 主觀과 客觀性의 문제는 영원한 난제이다.

Karl R. Popper, *The Poverty of Historicism* (London, 1961), p.155.

_____,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II (London, 1966), p.261.

Carl G. Hempel, *Readings in Philosophical Analysis* (New York, 1949), pp.459-71.

등에서 국가적인 행사일 때는 도록집이 사적인 학술지로 편집되어서도 안되며, 전시회 또한 전학계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할 것이며, 강연과 토론포 전학계가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셋째, 연구풍토나 연구비의 후원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미술사연구가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이나 사회, 정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며, 연구비도 국·공립은 물론 사립재단이나 개인들이 미술사연구비로 쾌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문예진흥기금은 미술사연구 분야에도 동등하게 인정해서 연구비 내지 출판물 후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예부흥은 미술사연구가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나라 미술사연구를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學會活動30년을 총관하면서 크게 考古美術同人會에서 韓國美術史學會로 발전하고 첫 발족후 30년이 되는 1990년에 다시 『考古美術』誌가 『美術史學研究』로 바뀌어지면서 30주년기념 전국학술대회가 개최되는 시점을 계기로 또 한번의 발전을 기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둘째, 우리나라 미술사연구도 學會의 변천과 그 궤를 같이하면서 크게 3번의 발전을 기하게 되었다고 살펴보았다.

셋째, 우리나라미술사를 조각·회화·공예·건축사 등 4분야로 나누어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 상당히 발전한 면도 보이지만 몇가지 문제점도 지적된다고 보았다.

끝으로 이러한 당면과제는 史觀의 정립이나 사료선택과 연구방법의 과학화 그리고 정책개선을 통하여 바람직한 면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나라 미술사연구는 이처럼 급속히 신장될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으므로 노력에 따라 1990년대부터 장족의 발전을 이루게 되리라 확신하는 바이다.